

투데이 칼럼

“중도의 목소리가 설 곳이 없다” 과연 제대로 된 표현일까?

얼마 전 H 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었다. '내 편만 옳다는 극단의 목소리... 중도의 목소리가 설 곳이 없다'

요즘 일부 언론들과 야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중도'라는 단어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에도 실망하고 자유한국당은 싫어하는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강렬한 충동에 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그런데, '중도의 목소리가 설 곳이 없다'는 말은 과연 제대로 된 표현일까?

우선 '중도'라는 표현의 당위성을 먼저 따져보자. 중도의 성격을 가진 목소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 나는 아니다 본다. 중도는 아직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일부 언론들이 말하는 합리적(?) 보수나 개혁적 보수는 중도가 아니다. 그냥 보수지. 그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들이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걸 본 기억이 있나? 나는 없다. 그것해야 자유한국당 싫으니 바른미래당 지지하겠다. 이정도가 고작이다.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안철수씨를 지지 하던지, 진보도 마찬가지로. 정의당이나 녹색당처럼 극단의 진보가 아니라고 해서 진보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자유한국당에 표를 던지는 걸 본 기억이 있나? 나는 없다. 표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자신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그룹에 표를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주지는 않는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들과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이도저도 아닌 안철수씨에게 표를 던지는 게 마지노선이었다.

안철수씨 같은 제3세력에 표를 던지는 건 그럼 중도인가? 말이 되나. 그들은 중도가 아니라 제3세력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거대 야당 체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그 두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도'라고 불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선택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중도란 말인가.

중도는 목소리가 있나? 당연히 없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고 관망 중인 사람들에게 무슨 목소리가 있나.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때나 목소리가 생기는 거지.

따라서 H 일보가 주장한 '중도의 목소리가 설 곳이 없다'는 말은 틀린 전제다. 중도는 설 곳이라는 게

필요 없다. 한 발 떨어져서 관망하다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선택이 없으면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게 전부다.

결론은 H 일보가 말한 중도는 중도가 아니다. 스스로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라 착각하는 열척없는 보수와, 진보이고 싶은데 진보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얼치기 진보들, 그리고 안철수씨 같은 제3세력 정치인들에게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다.

내 편만 옳다는 극단의 목소리라는 말도 말이 되지 않는다.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이미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는 거라니까. 심지어 그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나 얼치기 진보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중간한 사고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미 자기 포지션을 결정한 시점에서 옳은 것은 내 편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정의와 정의가 충돌하는 장이다.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그냥 이쪽의 정의와 저

쪽의 정의가 맞붙는 거다. 그리고 그 정의의 싸움은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 편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은 본인이 옳다고 믿는 쪽으로 이동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이동 후의 책임은 본인이 옳듯이 짊어지는 거다. 그게 민주주의의 싸움이다. 극단의 목소리? 설 곳이 없어? 어불성설이다.

어느 수구보수 신문사가, 민주당에 실망하면서 왜 실망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신문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답은 뻔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언행에 일관성이라는 게 존재하던가? 표절 논문으로 학위 취소된 의원이 교육 상임위 자리에 앉아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을 공격하고, 아주 강렬하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 의원이 장관 후보자 딸의 혜택을 용납해선 안된다는 목청을 높이지 않나. 본인 아들딸에게 복지부 장관상을 안겨준 야당 지도자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은 표창장을 공격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다. 다 떠나서, 지난 권력의 전횡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의원들이 여전히 그대로 의원직을 채우고 활개 치는 정당이다.

민주당에는 '실망'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싫다'라는 문장에 모든 이유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사설

태풍 피해 복구 빠르고 완벽해야

태풍 '타파'가 물고 온 많은 비가 전북 지역을 강타했다. 전국적인 피해 규모도 규모지만 전북의 경우도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보도된 뉴스 화면을 보면 피해 농가들의 비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추석 때 과일 가격 폭락으로 과수농가들이 아우성이었는데 태풍마저 과수원을 휩쓸고 갔으니 엄청난 다행인 격이 아닐 수 없다. 전주 근교 원동의 한 배 과수 농가의 안주인은 떨어진 배들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시울을 훔치기도 했다. 벼농사 현장은 눈 또한 엉망이기는 마찬가지다. 태풍 피해만 아니었다면 종년을 맡았을 터인데 너른 들간의 벼들이 쓰러져 물 속에 잠겨 있는 볼골은 여간 심란한 게 아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수해 복구에 발빠르게 나서야겠다. 수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도움이 신속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지난날 수해를 당할 때마다 복구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막기에는 시원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복구가 빨랐던 것도 아니고 완벽했던 것도 아니었던 까닭이다. 이번에는 수해 복구가 믿음직

스러워야겠다. 복구가 빠르고 완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피해는 규모가 크더라도 복구가 잘 마무리돼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지난날 그 상식적인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이 있었기에 여기 특별히 말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은 이듬해까지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채로 공사 중에 있다가 또다시 수해를 당하기도 했는데 매우 답답한 일이다. 공무원들 중에서는 속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할 이도 있을 것이다. 돈이 있어야 복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물론 그 같은 불만도 이유가 없지는 않다. 그래도 피해를 당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다급한 심사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극장 부리기 복구는 이제 근절돼 마땅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주목할 것이 있다. 피해 복구가 미흡한 현상이 없어져야겠다. 지금 우리 전북 지역이 당한 폭우 피해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어야 한다. 예전에 우리 전북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비 피해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태풍 타파가 활귀고 간 현상은 그게 아니다. 피해 농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피해복구가 빠르고 완벽해야겠다.

발굴 사업 추진케도에 올려야 한다

발굴 사업 발굴과 관련해 할 말이 있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추진케도에 올려야 한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대단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날이 지나도록 조용하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지난 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북도가 공표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해 짚어볼 바가 있다.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일거리를 찾아냈으면 지역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그게 없으니 공허하다.

전북도의 역량 발휘가 있어야겠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희망하며 발굴한 사업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억속에서 가물가물한 것이 적지 않다. 이같은 지적은 사업 발굴을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에 있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발전 발굴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도내 홍보용에 그치고 말았다.

전북도를 지켜보면 뒷심 발휘가 늘 아쉽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구체적 실용이 있어야 한다. 사업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의미 부여를 해서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이 실제로 추진돼야만 한다. 그러려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좀더 욕심을 내야겠다. 내년도에는 8억 원대에 육박하는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젊은 이들은 지역발전 발굴사업들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거고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좀더 힘차게 뛰어야겠다.

독자재언

중고거래, 사기를 피하는 방법

온라인 거래시장은 지역은 물론 세계 각국을 넘나들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중고용품 거래 또한 가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온라인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터넷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기는가 하면, 고장 난 물건을 보내는 수법, 거래하기로 한 물건이 아닌 벽돌이나 빈 병 등을 보내는 수법 등 날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들을 숙지해 온라인거래 시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먼저, 중고물품 거래는 직거래가 제일 좋다. 하지만 부득이 온라인거래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이 전화번호가 아닌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

용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도록 하자. 둘째, 가격이 생각보다 싸다면 경계해야 한다.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없다. 셋째, 상품에 특화된 커뮤니티에서 거래하면 사기당할 확률을 더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거래하기 전 사진 등으로 인증 요청하여 확인하자.

위 사항을 숙지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에서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통해 최근 피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온라인거래 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혜진 고청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위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옥토버 페스트, 놀이기구 즐기는 사람들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제186회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가 열린 가운데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다. 세계 최대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는 오는 10월 6일까지 이어진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